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승환



1966년 '신은 죽었나?'라는 표제가 저명 시사잡지 '타임' 지의 표지를 장식하였다.

망상의 산'에서 과학자수가 리처드 도킨스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국가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며 과학기술과 종교와의 활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

동 영역이 점점 더 중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조주의적 종교와 맹목적 과학주의는 갈등과 충돌을 초래한다.

로 과학과 마음이란 미지의 영역이 개척되고 있다. 과학과 종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상호교류와 보완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만의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적 발견은 종교적 의미의 틀 안에서 해석되며, 반드시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최근 국내외에서 과학계와 종교계의 상호 대화와 교류 노력이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고의 천재과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종교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없는 종교는 눈이 멀었다'라고 했다.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뇌연구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민주전당·민주공원' 광주가 최적지다

세계적 인권운동의 상징공간이 될 민주주의의 전당과 민주공원 유치에 광주시와 시민 등 민·관이 함께 나섰다.

는 물론 세계적인 인권·평화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불구 체감경기 싸늘한 한국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0%를 기록했으나 국민총소득(GNI)은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달러 달성은 경제력의 강화보다는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한다.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고

전갑길



울산에서 시작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의 바람, 이른바 '철밥통 깨기'가 서울, 제주, 전주, 성남, 곡성, 나주, 광양, 함평, 무안, 고흥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것이 '철밥통 깨기'라 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혁신은 예방약이요, 철밥통 깨기는 치료약인 것이다.

'철밥통 깨기'와 혁신

들림 없이 소신 행정을 펴도록 만든 공무원 신분보장제도가 배짱이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원들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혁신은 거창하거나, 생활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아 가고 있다.

기고

장희구



노무현은 빈농(貧農)의 아들이었고, 삼고 출신이었다.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됐지만 생활은 비주류로 일관했다.

해 변명하느라고 어떻게 진땀을 뺐는가? 그런 모습들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리는 국민이 많았다. 더욱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 더 이상 실패는 안된다

그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가진 것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의 희망 그 자체로 국민의 의지였다.

권 4년차 성적표는 온통 낙제 점수 투성이로 비친다. 다음 한국 대통령은 대학을 나오고, 경향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했던 어느 야당 의원의 말이 파란을 일으켰지만, "그래 그 말이 맞아"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無 等 鼓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름과 운명이 관련 있다고 믿어왔다. 이름으로 길흉화복을 따지는 성명학(姓名學)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이름 바꾸기가 손쉬워지면서 개명신청이 늘고 있다. 개명의 역사는 기원 전으로 거슬러간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본래는 아브람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처음에는 사래로 불렀다고 한다.

작명(作名)



과도 연관된다. 이름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2005년과 지난해 태어난 아기들에게 지어준 이름 가운데 남자는 민준, 여자는 서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동전 바꾸기 힘들어서야 누가 동전 저축 하겠나

대학생 딸이 봉사활동을 하는 야학에서 받아온 돼지 저금통 3개가 가득 찼다. 지난 1년 동안 야학 후원금으로 내기 위해 모은 것으로, 얼마 전 봉투에 담아 은행에 들고 갔다.

없이 일일이 100원, 50원, 500원짜리를 손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동전 바꾸기가 힘들면 누가 동전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문화재 소유주·주소까지 밝혀서야

전담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는 그 지역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올라와 있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은 후손들에게 정신적인 중요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은 기본 자료를 얻어낸뒤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곳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훑쳐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including Kwangju Ilbo,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details for subscription and circulation.